

수산 솔밭

도춘호



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구경을 갔다. 엑스포 공원은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수산 솔밭에서 2009년 여름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산 솔밭하면 우리는 소풍을 기억한다. 우리는 매년 수산 솔밭으로 소풍을 갔다. 초등학교 때 소풍하면 당연히 수산 솔밭이었다.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으로 싸주시고, 옷도 더 깨끗한 것으로 입고, 친구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와서 더 떠들면서 신작로를 따라서 한 줄로 서서 수산 솔밭으로 걸어서 갔다. 수산 솔밭에서 술래잡기, 노래자랑, 보물찾기도 하고, 점심을 먹고, 자유 시간도 가지고 놀고 그렇게 수산 솔밭에 소풍을 갔다. 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화도 조금 피어 있었다.

수산은 어린 우리에게는 읍내에서 십 리나 되는 먼 곳으로 알았다. 그러나 월변 친구들은 오리쯤 된다고 했다. 신작로를 따라가면 얼마 멀지 않는 곳이지만, 신작로는 버스나 트럭이 지나가면 흙먼지도 많이 나고 인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린 우리에게는 불편하기도 해서 그리고 읍내에 사는 우리에게는 읍내가 아니고 근남에 있다는 생각에 소풍 때나 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알았다. 우리는 대신 말루를 지나 염전 바닷가로 자주 놀러 갔다. 염전은 읍내를 흐르는 남대천과 근남 왕피천 사이의 바닷가 마을이다. 염전 위쪽에 왕피천 옆으로 수산 솔밭이 있다.

* 경북 울진 출생. 전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전대한화학회 회장 (2010년). 전 한국풀리우레탄학회 회장 (2013.4-2015.3). 현 미국화학회 한국지회장. 현 한국화학산업연구회 회장. 전남 순천시 용당동 동아아파트 104동 1803호. choondo@sunchon.ac.kr, 010-7550-3565.

‘솔밭’은 아주 우리식이고 아주 친근하고 재미있는 말이다. 솔밭은 소나무가 있는 밭을 말한다. 소나무가 있는 곳이 산이 아니고 밭이고 솔밭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멋진 말인가. 밭은 일반적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은 맨땅에서 보리밭, 배밭, 배추밭, 꽃밭 등으로 알고 있는 농경지를 일컫는 말인데, 소나무가 자라는 곳을 솔밭이라고 부르니 참으로 독특하다 할 것이다.

수산 솔밭에는 군부대가 1968년 울진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한동안 주둔했다가 최근 공원으로 되었다. 수산 솔밭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 주둔해서 잘 지켜진 셈이다. 말루를 지나 염전 가는 길에도 조그마한 솔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논밭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보면 수산 솔밭도 개발 시대에는 그냥 두지 않고 논밭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우리가 수산 솔밭을 엑스포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여유가 있을 때까지 잘 지켜진 셈이다. 수산 솔밭은 나라를 지키는 역할도 한 셈이다.

수산 솔밭에서 송이축제가 열린다니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옛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 같기도 해서 구경을 가게 되었다. 송이축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 유서 깊은 울진성류문화제도 동시에 수산솔밭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초중고 학생들의 백일장, 서예 대회, 사생대회, 그리고 일반인들의 미술전시회, 사진 전시회, 봉평신라비 전국서예대전도 열리고 있었다. 옛날에는 소풍만 오던 솔밭이 글도 쓰고, 붓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장소로, 그리고 야외 전시장으로 발전한 것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소풍 대신 이다음 꿈을 쓰고 꿈을 그린 장소로 솔밭을 기억할 것이다. 전시 작품들도 모두 홀륭하고 구경하기도 쉬워서 구경한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모두 응모하고 싶은 생각을 나게 만들었다.

염전 마을은 없어지고 코스모스밭으로 바뀌고 염전 해변가로

연결이 되고 솔밭 둑 넘어 왕피천 생태공원과 연결되고 강 건너 망양정이 보이니 수산 솔밭은 보기 드문 좋은 놀이터, 휴식처,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인 것 같다. 한 편 솔밭 주위에 친환경 관련 건물과 행사 관련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솔밭이 자꾸 갇혀져가는 감도 들었다. 수산 솔밭이 더 넓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희망도 가져보았다. 수산 솔밭은 우리나라에서 놀이 공원, 휴식 공간일 뿐만 아니고, 문학과 예술, 우리의 삶에 지혜를 보태주는 인상적인 장소로 모두 인식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공원 이름이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된 것은 조금 특색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송이 국밥을 솔밭에 소풍 나와서 옛친구들과 같이 먹고, 송이 차를 마시고 신선이 되어 수산 솔밭을 떠난다.